

“AI 기반산업 집중 지원을” “30년 숙원 의대 신설해달라”

광주시·전남도 민주당 코로나 극복 호남권 간담회 건의 현안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 이낙연)가 22일 전북도청에서 주관한 호남권 간담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코로나19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 미래 먹거리를 육성할 수 있는 현안을 건의하고, 당정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용성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특·광역시 중 누적 확진자 수가 33명으로 가장 적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물샷 틈 없는 방역망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7차에 걸쳐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 단기적 효과를 넘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부의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사회 확진자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급병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총력을 쏟고 있다”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된 상황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코로나 19 이후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한전공대와 연계한 ‘대형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이 같은 건의에 이낙연 위원장과 호남권 국회의원들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시 “광주 인공지능 기반 산업 집중 지원”=광주시는 이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의 학습용 AI데이터센터 구축과 인력양성 ▲인공지능 제약을 위한 대한민국 1호 AI 시범(실증)도시 조성 ▲AI 산업육성 및 데이터처리 특별법 제정 등에 당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이 시장은 “인공지능의 핵심은 데이터다. 11월 착공할 데이터센터는 우리나라 민간·공공 부문의 모든 데이터를 담아도

광주, AI데이터센터 구축

공기산업 예타 통과 등 요청

전남, 원형방사광가속기

e-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건의

전체 용량의 절반이 채 안될 정도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코로나19로 높아진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에 대응해 광주형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공기산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정부 추경안에 반영돼 있는 정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설계비 국회 통과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선 “근로자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부의 주택 지원 규정 마련과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 들어서는 빛그린산단 등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외 투자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내외국인 구분하지 말고 첨단산업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며 “경제자유구역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곳곳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선 오전 자리에서 이낙연 위원장, 김영록 지사와 함께 광주·전남의 가장 큰 현안인 광주공항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전남도 “30년 숙원, 전남권 의대 신설 해달라”=전남도는 30년 숙원인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포함해 모두 8가지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과 도농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정원 100명의 전남권 의과대학을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 판단에 달려있다. 의

과대학 총 정원은 보건복지부, 의대 설립은 교육부 인가 사항이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40개 의과대학(신입생 정원 3058명)이 있으나, 전남은 의대가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응급·중증질환 등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의대 신설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이날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함께 대학병원(500병상) 설립도 건의했다. 전남의 의대 유치 노력은 지난 1990년 3월 목포대가 정부에 ‘의대 신설 건의문’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30년 이상 이어졌다.

차세대 대형 원형방사광가속기 구축,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해상풍력 발전)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미래형 운송기기(e-모빌리티, 드론) 산업 생태계 확산, 소재·부품 제조 혁신 기반 구축, 온라인 수산물 직거래 기반 확충 등 7가지 사업도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광주·전남·북 국회의원들 및 각 시도 단체장들이 22일 오후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호남권 간담회를 갖기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과대학 총 정원은 보건복지부, 의대 설립은 교육부 인가 사항이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40개 의과대학(신입생 정원 3058명)이 있으나, 전남은 의대가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응급·중증질환 등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의대 신설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이날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함께 대학병원(500병상) 설립도 건의했다.

전남의 의대 유치 노력은 지난 1990년 3월 목포대가 정부에 ‘의대 신설 건의문’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30년 이상 이어졌다.

차세대 대형 원형방사광가속기 구축,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해상풍력 발전)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미래형 운송기기(e-모빌리티, 드론) 산업 생태계 확산, 소재·부품 제조 혁신 기반 구축, 온라인 수산물 직거래 기반 확충 등 7가지 사업도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4

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초과학 및 에너지 등 호남권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대형 연구시설이지만, 구축을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은 전남의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한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신안 해상에 세우는 것이다. 오는 2030년까지 민간투자 포함 48조원 이상을 투입, 4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

1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전남도는 이날 해상풍력발전 인프라 확보를 위한 국가 기본 계획 반영과 국가 지원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건의했다.

국가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정은 화순군 백신산업특구 200만㎡ 부지에 총사업비 1조1816억원을 들여 암, 치매 등 난치성 질환 면역치료 국가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복합단지 지정 등 지원이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낙연, 탄소섬유 산업 육성기반 조성 관심 조현준 “탄소산업은 기술력…정부지원을”

민주당 코로나 극복위원회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 방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광주·전남·북 국회의원들은 22일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을 찾아 탄소섬유의 발전 가능성을 눈여겨 봤다. 이 위원장 등은 효성 전주공장 방문을 위해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간담회를 20여분 앞당겨 시작하는 등 탄소섬유 육성을 통한 국난극복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일반 용기를 탄소섬유로 싸서 수소저장용기를 만드는 시설 등을 둘러보면서 효성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총괄사장 등 경영진에게 “일본과의 탄소섬유 경쟁”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탄소섬유의) 내수는 몇 프로인가. 수출은 어디로 하며 국내시장의 확산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 일본 제품이 비해 가격은 낮은가, 가격을 낮추면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등의 질문을 효성 경영진에 던졌다.

또 이 위원장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효성 전주 공장 방문 당시, 조현준 회장이 등산용 스틱을 들어 보이며 “대통령께서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개마고원 트레킹 가실 때 꼭 써달라”고 했던 일화를 떠올리며 효성이 생산한 등산용 스틱을 만져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탄소섬

유 관련 정부 지원이 있느냐”며 탄소산업 육성 기반에 대한 관심도 내비쳤다.

이에 조현준 회장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건의했고, 이 위원장은 특유의 호랑이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이 위원장 일행은 효성의 ‘기술’에 대한 철학’에도 공감을 내비쳤다. 조현상 총괄사장은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육성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창업정신을 지키고 있다”면서 “경영진의 70%가량이 공학 전공 엔지니어일 정도로 (효성의 기업정신에) 기술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또 조 총괄사장은 “현재 세계에서 탄소 독자기술이 있는 곳은 4곳으로, 이 가운데 일본이 3곳이며 한국은 효성 1곳 뿐”이라며 “효성은 지난 1971년 민간기업 최초 기술연구소 설립하는 등 기술에 대한 철학 덕분에 지난 2013년 신소재인 폴리케톤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의 무한 경쟁 속에서 국내의 전력비 부담 우려는 이날 현장 방문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조 총괄사장은 “탄소섬유 산업은 환경에 이비지하는 사업이며, 소재강국 대한민국에 이비지하고 있다”면서도 “투자비가 많이 드는 사업인데, 일본에 비해 전력비가 많이 들어 경쟁력이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했다.

또 조 총괄사장은 “장기적으로 중국 회사의 진출을 고려하면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탄소섬

이낙연 위원장, 코로나 극복위원회 순회 일정 마무리 본격 당권 도전 모드

늦어도 다음주 대표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2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지역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본격 당권 도전 모드에 돌입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전북도청에서 호남권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지역 상황을 청취·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모색했다. 이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는 이날 들어 총

북 오송, 경남 창원, 강원 원주를 차례로 방문했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오는 24일 활동보고회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에는 당 대표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원 구성과 남북 상황에 따라 당권 도전 선언 시기는 지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의원의 측근 관계자는 “후보 등록일이 7월

22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다”며 “정국 상황에 따라 출마 선언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7개월짜리 당 대표”에 집착한다는 비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선명한 출마 선언 메시지를 고심 중이다. 일단 이 의원은 지난 19일 국난극복위의 마지막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과거 IMF 세대처럼 ‘코로나 세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당내에 이들 세대를 돕기 위한 가장 ‘코로나 세대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코로나19 사태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구체적 비전 마련에 나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의 측근에서는 당권 도전을 위한 캠프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당권 도전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코로나19로 답답하시죠?

청정 제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

- 제1일 : 제주 도착 - 숙소
- 제2일 : 호텔조식 후 출발 - 카멜리아힐 - 서커스월드 - 중식 - 서핑체험 - 제주비경 - 호텔
- 제3일 : 기념품전시장 - 송마체험 - 성읍민속마을 - 중식 - 에코랜드 - 해녀촌 - 제주출발

블루나레 (제주↔완도)

제주-육지 최단시간 1시간20분

골드스텔라 (제주↔여수)

초호화 대형여객선

한일고속 대표대리점

HANIL EXPRESS

제주여행은 승족레저관광과 함께

T. 064.747-8000 F. 064.747-2590 H. 010-6865-7000